

공동체 소식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12월 기도지향

- Jason Savage, 박동희(안나) 가정
- 김민호, 이지혜(로사) 가정

1월 기도지향 : 박철수, 유미영(마리안나) 가정 / 박성기(모이세), 김정옥(수산나) 가정

가정을 위한 기도 지향

매 달 공동체 내의 두 가정을 선정하여 기도를 봉헌한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첫 침례 미사와 십자가의 길, 목주기도뿐만 아니라, 그 달의 모든 미사, 영성체, 목주기도, 십자가의 길, 봉사 등을 지향 가정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 기도의 전통이 공동체 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원하는 가정은 미리 전례분과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 일시 : 1/1(화) 오전 11시 미사
- 미사 후, 평협에서 준비한 떡국 잔치와 율놀이가 있습니다.

첫 침례 신심미사

- 첫 목요일 미사(1/3) : 오전 10시
- 첫 금요일 미사(1/4) :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첫 토요일 미사(1/5) : 오전 10시, 미사 30분 전 목주의 기도

송년 인사

한 해 동안, 하느님께서 저희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에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주임 신부님의 인사이동으로 더욱 분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기도 봉헌으로 함께 해주신 평협과 분과장님들 이하 공동체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숨은 일도 보시는' 주님께서 그 노고를 갚아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타

- 오늘 미사 후, '가정별 축복식'이 있습니다.
- 새해 공동체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 당 1부 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1/6), 구유 철수 및 지하실 정리가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14	209	153/197	11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수한(베 드 로)	안동현(프란치스코)
	정예찬(미 카 엘)	안지영(카타리나)
차주	홍순익(마르띠노)	정준구(파비아노)
	김준영(요 셉)	정병훈(보니파시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금주	김명은(안 젤 라)	홍순익(마르띠노)
	박혜정(카타리나)	최은미(아 네 스)
차주	박혜정(카타리나)	차호섭(요 셉)
	김수연(율리안나)	최순윤(마 리 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김수연(율리안나) 안현숙(크리스티나), 박옥희(헬레나)
차주	김경희(스콜라스티카), 한춘희(라파엘라) 이영민(엘리사벳), 한순례(루시아)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차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드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2/23(주일)	92명	489불	300불
성탄밤미사/낮미사	64명/116명	395불/575불	624불/175불(구유)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믿음이 깊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으면 천체에 적극 참여한다"

2012년 12월 30일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가정은 모든 생활의 기초이며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 거룩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도록 청하며 정성 모아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화해설

단내 수원교구,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소재.

단내 성지는 1866년 병인박해 때 남한산성에서 순교한 정은 바오로의 고향이자 유해가 묻혀 있는 곳이다. 그가 체포되자 병든 작은할아버지를 모시고자 종손자 정 베드로가 자진하여 잡혀갔고, 끝까지 배교하기를 거부한 그들은 백지사형을 받고 순교했다. 단내 성지는 특별히 이천에서 태어났거나 체포되어 순교한 5위의 성인을 기념하고 있고, 가정성화를 위한 성가정 성지로 명명되었다. 이는 이곳에서 기념하는 순교자 대부분이 가족 순교자이기 때문이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집회 3,2-6.12-14<또는 1사무 1,20-22.24-28>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느님을 두려워 하 며 그분의 길을 걷는 이는 모두 복 되 도 다

- 복되어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 도를 닦는 자는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리니 너는 복되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 ◎
- 너의 집 안방에는 네 아내가 마치도 열매 푸진 포도나무인 듯 너의 상 둘레에는 네 자식들이 마치도 올리브의 햇순들 같도다. ◎
- 옳거니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듯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내리시어 한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기를 바라노라. ◎

제 2 독서 : 콜로 3,12-21<또는 1요한 3,1-2.21-24>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복 음 : 루카 2,41-52 <부모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다.>

세 마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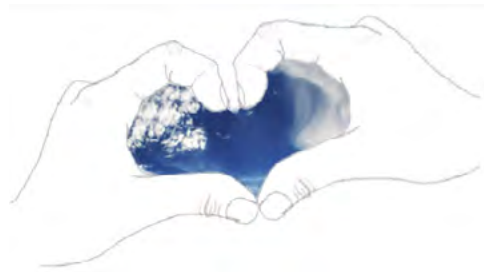
해마다 새해에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촉진하였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막 50주년인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모든 이를 위한 평화 증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유혈 분쟁과 전쟁의 위협, 극심한 빈부 격차,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하여 우리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평화를 이루려는 수많은 노력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참행복은 약속들입니다. 참행복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요구하는 것들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메시아의 선물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이뤄집니다. 이 평화는 인간의 잣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토대 위에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공존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는 진리, 자유, 사랑, 정의를 토대로 인간의 참여를 요구하며, 자신이 지닌 이성적 본성에 따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참다운 평화의 일꾼은 생명을 온전히 사랑하고 수호하며 증진하는 이들입니다. 평화는 꿈이나 이상향이 아니라 실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평화를 실천하는 첫 걸음입니다. 낙태와 안락사 등은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태아를 비롯하여 가장 힘없는 이들의 생명권을 수호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화 실현이나 민족들의 발전, 환경 보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종교 자유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노동의 권리 역시 오늘날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빌미로 노동이 점점 더 경시되고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위한 근본 선으로서 노동의 개념을 강화하는 윤리 원칙과, 정신적 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노동관이 필요합니다. 이윤과 소비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지금의 지배적인 경제 모델은 극심한 불평등을 자아냅니다. 오로지 경쟁력만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일꾼은 공동선을 위하여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이익을 넘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심각한 식량 위기에 관심을 쏟아 평화의 선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가정과 수도 공동체, 문화 단체, 학교와 같은 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생명을 증진해야 하는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느님 사랑의 기준에 따른 인격 성숙의 못자리이며, 도덕과 신앙 교육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문화를 촉진하는 미래의 일꾼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입니다. 아울러 모든 민족들이 형제애를 나누며,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가 이룩되기 위해선 평화의 일꾼들에 대한 교육이 무척 중요합니다. 활동, 연민, 연대, 용기, 인내를 담고 있는 평화 교육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일구며 선의를 지니고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잘못과 불의를 인정하고 화해를 향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며, 인간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참된 믿음을 가져다 주시도록 하느님께 간청합시다.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베네딕토 16세

마 중 물

원숭이 현상 - 10%의 사람들

미국의 과학자 <라이올 왓슨>이 ‘백 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이름 붙인 학설이 있다. 그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량에 달하면 그 행동은 그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간을 넘어 확산되어 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 학설은 1994년에 인정되었다. 많은 동물학자와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 이것은 원숭이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나 조류, 곤충류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950년 일본의 미야자키현 고지마라는 무인도에서 일어난 일이다. 과학자들이 원숭이 20여 마리 살고 있는 곳에서 먹이인 고구마를 주면서 모래밭에 던져 주었다. 원숭이들은 처음에는 고구마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 내고 먹었는데, 어느 날 한 살 반짜리 젊은 원숭이 한 마리가 강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원숭이들이 하나, 둘 흉내내기 시작했으며, ‘씻어 먹는 행위’가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정착해 갔다. 고구마 씻기를 하는 원숭이 수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자, 이번에는 고지마섬 이외 지역의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행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불가사의하게도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카자키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원숭이들도 역시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다. 서로가 전혀 접촉이 없고,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신호를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정보가 흘러간 것이다.

<백 마리 째 원숭이 현상>이라는 학설에 의해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람들의 수고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략 10% 되는 사람의 진실된 노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9. 신앙의 해에 우리는 미사성체에 어떻게 참여하여야 할까요?

신앙의 해에 우리 신앙인은 자주 미사에 참여하여 신앙을 돈독히 하여야 하겠습니까. 미사성체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훌륭한 길입니다.

신앙의 해는 “전례, 특히 성찬례를 통한 신앙의 경축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와 새로운 복음화의 원천인 성찬례 안에서 교회의 신앙이 선포되고 기념되고 강화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참다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찬례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교황청 신앙교리성).

제2절 “저는 믿나이다.”

10.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신경(信經 Credo)을 외워야만 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경은 그들이 세례 때 했던 약속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해 주는 기도의 역할을 했습니다(믿음의 문 9항). 또한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이 공적인 증언과 노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믿음을 사적인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주님과 더불어 살고자 그분과 함께 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믿음의 문 10항).

따라서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나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귀중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장 중요한 결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믿음의 문 11항).